

등원할 아이가 없다

광주·전남 5년간 유치원 61곳 문 닫아... 원생 17.8% 감소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유치원 61곳이 문을 닫고 유치원생 수는 17.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원 유치원은 사립에 집중됐으며 폐원 사유는 '원아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조사됐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학생 수는 모두 감소 추세였지만, 유치원과 달리 초·중·고교 수는 같은 기간 5곳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확정 발표한 '2022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광주 유치원생 수는 2022년 기준 2만99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 2만4654명에서 3656명(14.8%) 감소한 수치다.

전남의 유치원생 수는 2017년 2만710명에서 2022년 1만6285명으로 4425명(27.1%) 줄었다. 광주·전남 전체에서 보면 5년 전보다 8081명 감소한 것으로 해마다 지역에서 유치원생 1600명이 줄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 기간 유치원 수도 급감했다. 광주 유치원 수는 2017년 314개에서 2022년 288개로 26개(8.3%)가 감소했다. 신설 등 이유로 공립유치원 7곳이 늘었고 폐원 등 이유로 사립 유치원 33곳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의 유치원은 551개에서 516개로 줄었다. 공립 12곳, 사립 23곳 등 모두 35개(6.3%)의 유치원이 사라졌다. 광주·전남 전체로 보면 이 기간 공립유치원 7곳이 늘었고 사립유치원 68개가 감소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수 감소에 대해 "유치원 폐원 사유 대부분은 '원아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보인다. 유치원, 초·중·고교 가리지 않고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유치원부터 타격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초·중·고교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 수는 최근 5년 사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초·중·고교는 2017년 19만6065명에서 2022년 16만9208명으로 2만6857명(13.7%) 줄었다. 전남은 2017년 20만6506명에서 2022년 1977명으로 2만4529명(11.87%) 감소했다. 광주·전남 전체로 보면 초·중·고교는 40만2571명에서 35만1184명으로 5만1387명(12.76%) 감소했다.

그러나 이 기간 초·중·고교 수는 광주 4곳, 전남 1곳이 증가했다.

2017년 광주 초·중·고교 수는 311개교에서 2022년 315개교로 늘었고, 전남은 819개교에서 820개교로 늘었다. 광주는 초등학교 1곳, 중학교 2곳, 고교 1곳이 늘었고 전남은 초등학교 3곳이 줄고 중학교와 고교가 2곳씩 늘었다.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 수가 소폭 늘어난 것은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 때문으로 파악됐다. 폐교는 학생 원거리 통학 부담,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존치 요구 등으로 쉽지 않지만 신설은 다르다는 것이다.

전체 학생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수는 2017년 1만425명에서 2022년 1만4709명으로 4284명(41.09%) 늘었다. 다문화학생은 2022년 기준 광주와 전남에 각각 4371명, 1만338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추석 분위기 물씬 추석을 앞둔 5일 과일 도매상들이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에서 출하된 과일을 경매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추석에 굶지 마렵

광주시, 9~12일 결식 우려 아동 7450명에 도시락·급식카드 제공

광주시가 추석 연휴기간 중 저소득층 등 결식 우려 아동이 끼니를 거르거나 굶지 않도록 급식 지원에 나선다. 지원 기간은 9일부터 12일까지며, 관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7450명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또는 아동급식카드를 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하고, 추가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추석 연휴 전 사전점검을 통해 도시락 배달 급식제공 업소 4곳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와 식품 제공계획 등을 점검하고 연휴기간 원활한 급식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은 연휴기간 중 전용 앱

(광주 1-폼 카드)으로 가맹점 및 카드잔액 등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주식회사 신한카드와 협약하고 신한카드사 가맹점과 자동 연계를 통해 7월 1일부터 급식 아동이 일반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 1만7000여 곳의 광주시 소재 대다수 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석 연휴기간 급식 관련 비상 연락처는 광주시(613-5500-2), 동구(608-2222), 서구(360-7222), 남구(607-4900), 북구(410-8100), 광산구(960-8222)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올 수능 3만명 접수

지난해보다 800명 줄어

광주와 전남지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이 각각 1만6720명, 1만3995명 등 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6%인 800명이 감소한 가운데 졸업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2023학년도 대입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는 1만6720명으로 지난해 대비 314명(1.8%)이 감소했다. 광주지역 재학생 응시생은 지난해 대비 812명 감소한 1만2165명(72.8%)이며 졸업생은 462명 증가한 4055명(24.3%),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36명 증가한 500명(2.9%)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은 총 1만 3995명이 접수해 지난해 대비 486명(3.4%)이 감소했다. 재학생이 1만1486

명(82.1%)이며 졸업생 2168명(15.5%),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341명(2.4%)이다. 재학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656명 감소, 졸업생은 138명 증가,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32명이 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지난해 대비 171명 감소한 6986명(49.9%), 여학생은 315명 감소한 7009명(50.1%)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능 지원자가 재학생이 감소하고 졸업생이 증가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 '서울 16개 대학 정시 확대' '약대 학부생 모집' '수도권 지역균형전형 실시' '의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이과생 문과 교차진학으로 인한 반수생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올해 전국 수능 지원자는 50만8030명으로 지난해 대비 1791명(0.4%) 감소했다. 전국 지원자 중 재학생이 35만239명(68.9%)으로 1만471명 줄었으며 졸업생은 14만2303명(28.0%)으로 7469명(5.5%) 증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월어머니상' 후보자 공모

오월어머니집, 23일까지

(사)오월어머니집은 '제16회 오월어머니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5일 오월어머니집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숨은 시민을 찾아 노고와 공로를 위로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오월어머니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오월어머니상 후보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희생당했거나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5·18민주유공자와 친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추천인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공적서, 주민등록등본 1통 등을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10월 22일 오월어머니집에서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개인(2명) 100만원, 단체(1곳)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혼때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박탈은 합헌"

재판관 5대4 '팽팽'... "연금 형성 기여 고려해야" 반대 의견도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일률적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2016년 1월 개정 전) 59조 1항이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영원히 박탈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제정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위헌제정 신청인 A씨는 1992년 공무원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한 뒤 매월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2014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이를 알게 된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씨에게 2014년부터 그 시점까지의 연금액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유족연금은 본래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기여금에 대한 공동 부담 여부에 좌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단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배우자의 연금 형성 기여를 고려하지 않고 유족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 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30점 이상 (10%) 180,000 / 40점 이상 (15%) 170,000 / 50점 이상 (2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 484,500 /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 918,000 /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 1,734,000 /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